

한전공대 내년 5월 착공...강의실 들어설 본관동부터

필수시설 건물 우선 건축...에너지기술연구소 건물도 활용

학교법인 한전공대가 내년 5월 교사(校舍·학교 건물) 착공에 나선다. 2022년 정상 개교를 위해 강의실·행정실 등 필수 공간이 입주할 본관동을 부분 준공하고 부족한 부분은 인근에 들어설 한전 에너지기술연구소 건물을 활용해 법정 교사 면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행법이 임대 교사 사용을 불허하고 개교 1년 전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교사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규정을 담은 가장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학교법인 한전공대는 내년 5월부터 학교 건물 건축 공사에 착수한다. 1단계 공사 구간인 연면적 3만 1000㎡ 규모의 본관동 가운데 4000㎡에 대해서 설계를 마치고 우선 착공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해당 공간에는 향후 강의실·연구실·행정실 등이 들어선다. 우선 착공 대상 건물은 학교법인 한전공대가 3단계로 나누어 짓는 교사 건축 공사

의 1단계 공사 구간에 포함되는 곳이다. 애초 학교법인 한전공대는 1단계 공사 교사 면적 3만 1000㎡(본관동) 전체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같은 해 7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사 건설 속도가 늦어져 개교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사회에 퍼지자, 본관동 일부(4000㎡)에 한정해서 부분 설계 후 우선 착공 방식으로 선화해 착공 시기를 약 2개월 앞당겼다. 본관동 조기 착공과 함께 학교법인 한전공대는 임대 교사 확보 방안도 확정했다. 한전공대 인근에 오는 2021년 9월 들어설

한전 에너지기술연구소(1만 7000㎡ 건축면적)다. 한편 관계자는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한전공대 개교를 위해 필요한 최소 교사 면적은 2만㎡로 캠퍼스 내 강의실 건물 4000㎡와 임대 교사 1만 7000㎡를 통해 면적 요건은 어느 정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 설립 주체가 개교 12개월 전까지 필수 교사 준공 후 대학 설립 인가를 신청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설계와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더라도 2021년 2월까지 대학 설립 인

가 취득에 필요한 교사 면적(최소 2만㎡)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규정에서 임대 교사를 불허하고 있다는 점도 난제로 작용한다. 학교법인 한전공대와 전남도는 이같은 난제를 가장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정 교사 면적 확보, 임대 교사 활용 등 현행법 체계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들을 신정훈(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가장 한전공대 특별법으로 풀어나, 2022년 3월 정상 개교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전남도와 학교법인 한전공대는 특별

법 제정, 교사 부분 준공 및 임대 교사 활용 등 학교 건물 확보 및 개교 일정을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방향성을 확정했다. 신정훈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 일정이 워낙 빠듯해 본관동 우선 착공, 부분 준공과 함께 인근 에너지기술연구소 임대교사 활용 방안이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대두됐다"며 "현행법 테두리에서 제한되는 것들이지만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지역민 숙원사업인 만큼 교사 확보 등 특례 규정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상 개교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디지털 세계, 새로운 국제기구 필요”

조현상 효성그룹 총괄사장, 클라우스 슈바프 WEF회장 대담

‘제 21회 세계지식포럼’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앞당겨 빅테크 기업 시장지배력 커져 전세계 공급망 뒤흔든 코로나 리쇼어링 물결 당분간 거셀것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코로나19가 4차 산업혁명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슈바프 회장은 지난 16일 매일경제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21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조현상 효성그룹 총괄사장과 대담을 나누며 이렇게 주장했다. 슈바프 회장은 베스트셀러 ‘제4차 산업혁명’을 펴내면서 4차 산업혁명을 세상에 알린 인물로 유명하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의 주제로 삼기도 했다. 17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슈바프 회장은 조현상 효성그룹 총괄사장과 대담하면서 “코로나19 등장으로 4차 산업혁명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07년 다보스포럼에서 선정한 ‘차세대 글로벌 리더’ 멤버라는 인연으로 이번 대담을 진행했다. 조 회장은 대담에서 “코로나19가 4차 산업혁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슈바프 회장은 “코로나19가 4차 산업혁명 속도를 가속화했다”고 평가하면서 “10년 전 인류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확산에 직면했다면 회사나 학교, 정부를 막론하고 어떤 조직도 이렇게 빠르게 온라인화하지

못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온라인화가 애플, 삼성,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의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고착화했다는 게 슈바프 회장의 설명이다. 이와 달리 코로나19의 부작용으로 불평등이 심화됐다고도 지적했다.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생이나 비숙련 노동자, 디지털화되지 못한 회사와 정부는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슈바프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재설립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의 과실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재교육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슈바프 회장은 또 코로나19 이후 단계적으로 탈세계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앞으로 수년간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리쇼어링’을 단행할 것이고, 한국도 이같은 변화를 도모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현상 사장이 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국제기구와 관련된 우려에 대해 지적하자 슈바프 회장도 동의를 표하면서 “기존처럼 경제발전만을 도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불평등과 교육 같은 새로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 역할을 매우 잘해왔다”고 말했다. 슈바프 회장은 “협력, 교육, 전쟁 등 많은 글로벌 상호작용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데 오프라인 국제기구 같은 역할을 온라인에서 하는 국제조직은 아직 없다”고 지적하면서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와 시각을 반영한 국제조직이 필요하고, 세계무역기



조현상 효성그룹 총괄사장이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회장(위)과 코로나19로 4차 산업혁명 가속화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온라인 대담을 나누고 있다. (매일경제 제공)

구(WTO)가 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정책이 5G·수소연료 등 미래 기술에 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국가들이 나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기용 기자 pboxer@

세계김치연구소 설립 10년만에 위기

식품연구원으로 통합 검토...광주 김치산업 육성 약재

김치 산업 육성을 위해 광주시가 유치한 세계 김치연구소가 설립 10년 만에 통합 위기에 놓였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세계김치연구소를 식품연구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합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김치연구소는 그동안 연구 성과 부족 등을 이유로 2013년, 2016년 기관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으며 2016~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지적을 받았다. 광주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 부처 등에 존치를 요청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치연구소는 2010년 1월 설립돼 2012년 10월 광주에 청사를 준공해 경기

성남에서 이전했다. 통합안이 이뤄지면 김치연구소는 한국식품연구원 광주 분원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광주시는 연구소 인근에 김치 타운을 개관하고 세계 김치 축제도 1994년부터 개최하는 등 김치 산업 육성에 힘썼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시는 남구에 2만 1300여㎡ 규모 부지를 사들여 제2의 김치 타운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김치연구소가 통합할대 위상이 약화되면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통합이 된다면 연구 독립성과 자율성 상실이 우려된다”며 “독립 기관으로 존치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유흥업소발 감염, 사랑제일교회 연관

접객원 2명 7월 말 합숙예배 후 8월 초 의심증상 발현

광주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을 촉발한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지역감염 확산이 서울 사랑제일교회 합숙 예배에서 시작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17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한 달 여에 걸친 끈질긴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 분석을 통해 광주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2명이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흥업소 접객원인 확진자 2명이 7월 말께 전국 각지의 교인이 참여한 사랑제일교회 합숙 예배에 다녀온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해당 확진자들은 합숙 예배 참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국은 이들 확진자와 관련한 의미 있는 진술 등을 동료 접객원으로부터 확보했다. 확진자가 합숙 예배를 다녀온 직후인 8월 초부터 기침 등 의심증상을 보였다는 목격담 등이다.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확산은 지난달 12일 첫 환자가 나온 이후 23명까지 늘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사태는 8·15 광화문 집회 관련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10월 3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상황이다. 시민 여러분께 불법 집회 불참을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시: 2020. 9. 15(화) 오후 7시
-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 → 무등산 방향 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시: 2020. 9. 8(화) 오후 7시.
-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상: 누구나 (선착순 〇〇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갑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태백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땅 매매

화순 도곡 신덕리 계획관리지역 야야 20530㎡
야산·축사허가 및 지붕 위 태양광 설치 가능
선로확보가 14억원(조정가)

▶ 남구 대촌 지식동 자연녹지 답1003.5㎡ (대촌산업단지4차선 도로점, 아파트 2천세대 예정) 29억원

▶ 남구 대촌 양과동 답1857㎡ 2억8천5백만원

▶ 남구 대촌 양촌동 답3875㎡ 3억5천5백만원

▶ 광산 수암동 상업용 4층 건물 대지 480㎡, 연 998㎡, 엘리베이터 아파트 밀집지역 보 2억9천9만원, 월 1640만원, 용 12억원 매 42억원

▶ 나주 남평 교촌리 생산녹지 2585㎡ 3억5천5백만원

▶ 대한공인중개사사무소(전제) 010-6683-3274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 포충로 606-2

▶ 산행안내

9월19일(토)
▲ 광주금당산악회 9월19일(토) 충북 포암산·만수봉·용암산, 봉선동 롯데마트 앞 06:10, 진월동식자재마트 앞 06:20, 연주체육관 06:30, 한국병원 앞 06:40, 문예회관 정문 06:50, 비엔날레주차장 입구 07: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 광주호산회 9월19일(토) 전북 순창, 남원, 송대령, 체계산 출렁다리,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9월25일(금)
▲ 광주호산회 9월25일(금) 무박2일 설악산 대청봉 천불동 계곡 B코스 울산타워 권금성케이블카,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22:00, 롯데백화점 22:30, 예술회관 후문 22:4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합병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포에이스(갑)와 주식회사 에스엘(을)은 2020년 9월 17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의하여 있는 채권 및 주주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각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내에 이의가 없으면 합병등에 의하여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갑" 주식회사 포에이스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 753-4 대표이사 박종관
"을" 주식회사 에스엘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710번길 20, 506동 1403호(동천동,우미리아파트) 사내이사 공유리

주권제출공고

서기 2020년 9월 7일 주식회사 반도수중펌프(갑)와 주식회사 반도수중펌프(을)은 각각 주주총회의 서면결의로 "갑"은 "을"과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 방법으로 "을"의 보통주식 1주당 "갑"의 보통주식(연금액 10,000원) 0.734475주의 비율로 할당 교부하기로 하였으므로 주권의 변함이 필요하오니 당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0년 9월 18일
(갑) 법 인 명: 주식회사 반도수중펌프
대표이사: 소영호
광주광역시 서구 매희로 53, 13동 118호 (매월동, 산업용계유동센터)
(을) 법 인 명: 주식회사 반도수중펌프
대표이사: 소영호
광주광역시 광안구 하남산단9번로 144 (안창동)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0년 9월 1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100,000,000원을 금 82,000,000원으로 감소하고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중 보통주식 1,800주를 본 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1주당 150,200원으로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의하여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0. 9. 18.
주식회사 원명건설
광주광역시 북구 동천로 260(덕화동) 사내이사 김동환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光州日報

신문구독 (062)227-9600
예향구독 (062)220-0551
광고문의 (062)220-0550